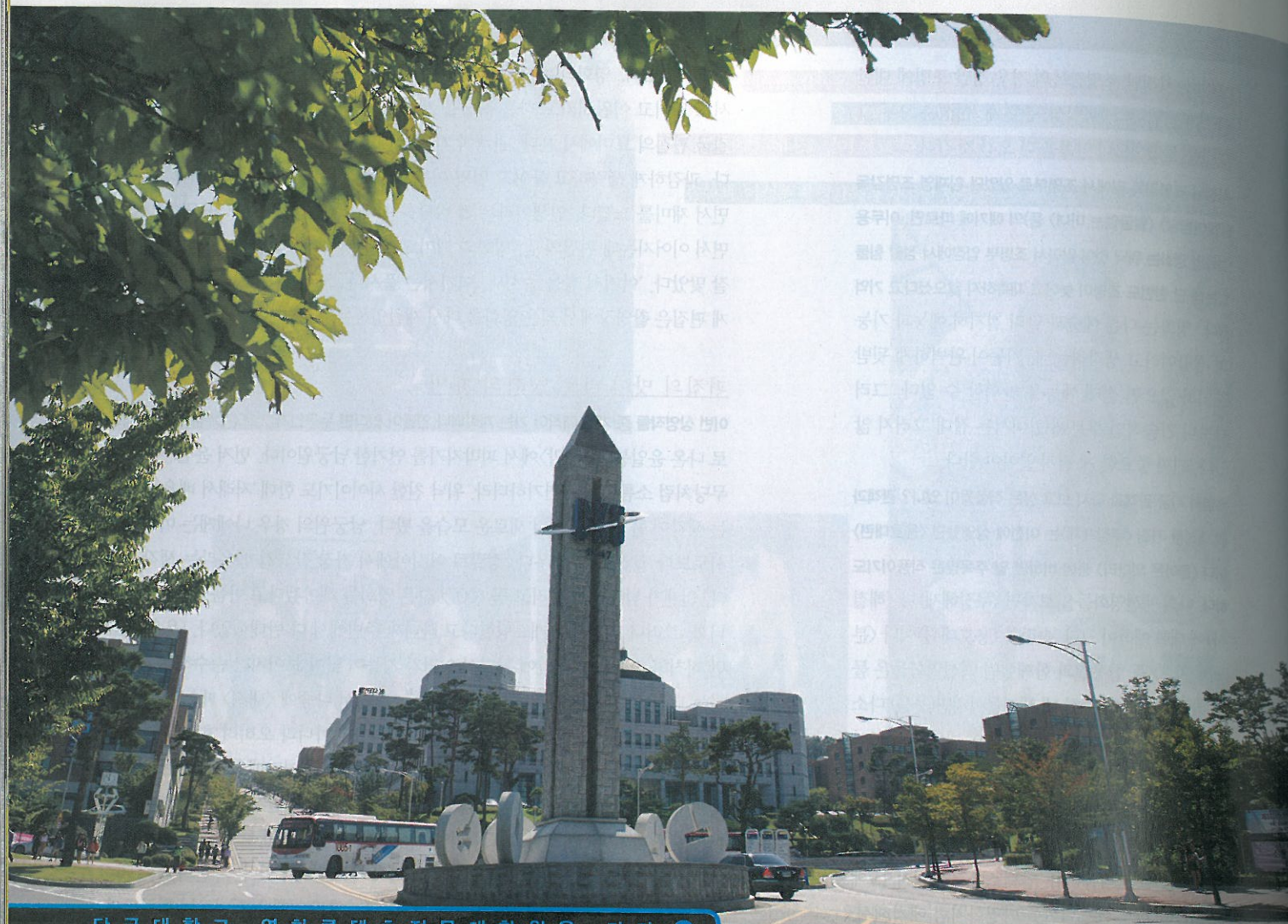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을 가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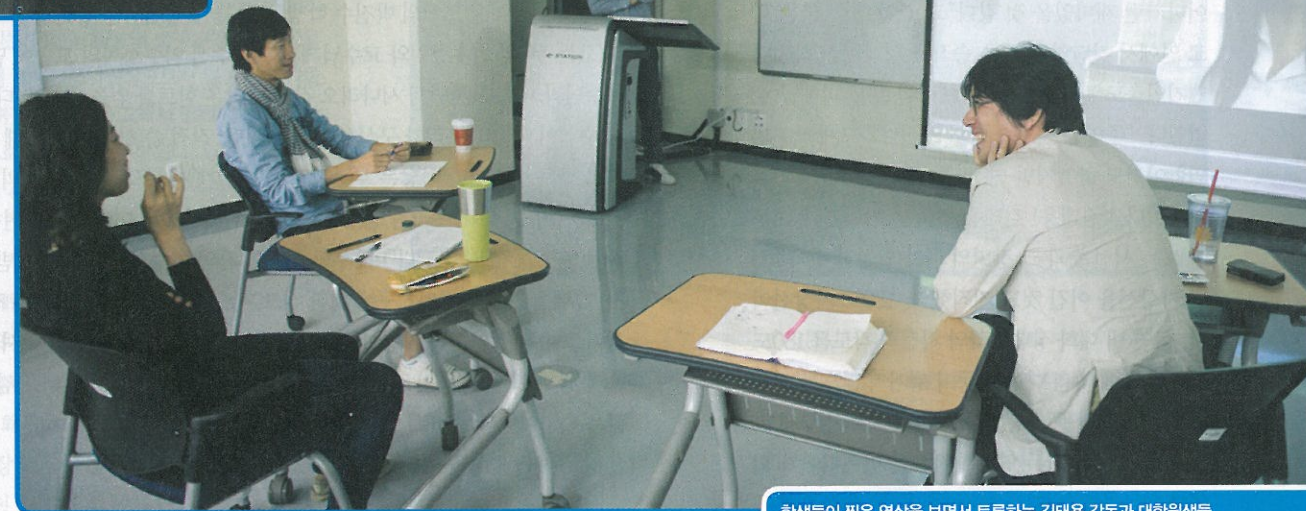
현장 교육이 답이다

지난 3월 설립된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이 두 번째 학기에 접어들었다. 김동호, 윤제균, 박경택, 이명세, 김태용, 심재명, 오정완, 이유진, 박기용, 김미희, 이춘연, 김선아, 강지영, 정서경, 우정권 등등, '창의력을 지닌 현장 실무 전문인 양성'이 교육 목표인 만큼 설립 전부터 화려한 교수진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학원 교학부장이자 스크린라이팅 관련 수업을 맡고 있는 우정권 교수는 "처음 대학원을 설립할 때 교수진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총무로 현장 경험이 최소한 10년 이상 되는 분 중 연출, 프로듀서, 시나리오 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생 역시 디렉팅, 프로듀싱, 스크린라이팅 세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장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커리큘럼 역시 대학원생 구성에 맞춰 세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각 트랙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김동호 원장은 "세 트랙이 장편영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수업 역시 세 트랙의 융합에 맞춰져 있고, 각 파트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밖에 없다"고 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을 듣다보니 총무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감독, 프로듀서, 시나리오작가가 진행하는 수업이 무척 궁금했다. <씨네21>은 이번주부터 4주 연속으로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수업을 실을 예정이다. 다음은 김태용 감독의 '프로젝트 기획 및 시나리오' 수업에 관한 거다.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후학 양성에 매진 중인 김동호 원장의 인터뷰도 함께 담았다.

글 김성호 · 사진 최성열 · 편집 심은하 · 디자인 모보형

김태용 감독의 '프로젝트 기획 및 시나리오' 수업 지상중계

단순한 이론 수업? 아니야!



학생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토론하는 김태용 감독과 대학원생들.

오전 9시 수업이란다. 마포구인 집에서 단국대가 있는 경기도 수지까지 어렵잡아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적어도 새벽 6시 반에는 눈을 떠야 한다. 이런 낭패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잡는 다지만 졸업한 지 8년 가까이 지난 내게 그건 아무래도 무리다. 미처 잠에서 깨지 못한 몸을 이끌고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8100번 빨간 버스를 탔다. 40여분을 달렸을까. 버스는 친절하게 나를 학교 안에 모셔다주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서관 건물에 보일 겁니다.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이 그곳에 있어요."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의 한 관계자가 보내준 문자를 확인하고 오른쪽을 바라보니 건물 하나가 보였다. 등교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서관이 맞단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건물 입주 정보가 적힌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김동호, 윤제균, 박경택, 김태용, 심재명, 오정완, 이유진, 박기용, 김미희, 정서경 등. 총무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감독,

프로듀서, 시나리오작가들로 구성된 화려한 교수진이었다. 학교를 찾은 9월25일은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시나리오'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학기 3번째 수업이었다.

활영한 영상 보며 '컷 바이 컷' 토론

전부 합쳐 4명이었다. 50명은 죽히 들어갈 강의실에 김태용 감독과 학생 셋이 있었다. 이들은 칠판 앞에 반원을 그려 자유롭게 앉아 있었다. 한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상을 틀었다. 습작인 듯 제목은 없었다. 러닝타임이 5분 남짓한 이 영상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임신한 주인공 여대생이 화장실에 들어와 속상해하고 있던 중 옆 칸에 앉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김태용 감독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컷 바이 컷'(Cut by cut)으로 짚어나갔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많은 얘기는 주인공 캐릭터였다. "지금 찍어온 영상만 보면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주인공의 대사와 행동이 이야기의 주제, 톤 앤드 매너와 잘 맞물려야 하는데,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산만한 것 같아." (김태용) "저희가 생각한 건 민규동 감독의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임수정 같은 캐릭터였어요." (스크린라이팅 트랙의 박진수 학생) "그렇다면 차라리 임신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대사로 내뱉기보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임수정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안정을 찾는 캐릭터가 맞지 않을까."